

漁港消息

發行人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社漁村건설

接岸施設(物揚場)所要 규모 조사 課業 매듭

非合理的的要素과 감히 除去 物揚場 투자 계획 全面 調整

揚陸·休息·補給 埠頭도 대상 船團 구성, 회전수 등 漁業形便에 맞도록

수산청은 점안시설소요
연장정방안을 개선, 비
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
고 각항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 전국 어항에
대한 물양장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수산청은 어항개발전투
용역기관인 (주)유일종합
기술단에 용역을 의뢰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30여개의
지정어항에 대한 현지조
사자료 및 의뢰의 자료를



토대로 점안시설연장방안
을 검토, 수정 마무리했
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양육부, 휴식부, 보
급부의 소요연장 산정
식이 전면 재조정됐고,
建設機能人力
養成對策강구

정부는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능
공양성을 확대하고 취업
정보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10월 10일 경제기
획원이 발표한 「산업인력
수급대책 세부추진계획」
에 따르면 부족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건설기능인
력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원의
건설기능양분야를 확대유
영, 현재 8천명규모의
양성인원을 1만4천명으
로 증대시킬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연간 1천~1천2백명
양성가능한 훈련원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漁港施設使用告示 개정 寄附체납施設 포함 許可대상

수산청이 국유재산법시
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법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수산청이 중점의 「내부
부동산관리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내부부동산
관리규칙」은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101조의
다섯항을 「건설부 공시지
가」를 포함, 1천분의
이상을 개정하고 허가
대상에 기부채납 시설을
포함시켰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
부채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총액이 기부재산가
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
료를 면제키로 하는 한
편, 사용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허가취소사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과납체납키로 했다.

선단구성의 경우는 종래
의 2·3척이던 것을 업
종에 따라 구분토록 했
다.
또한 회전수는 종래의
5톤미만은 15회, 5톤이
상은 10회이던 것을 실제
부두이용시간에 최단양육
시간을 나눈 값이 적용된
보급부두의 규모는 2

수산청은 어항개발전투
용역기관인 (주)유일종합
기술단에 용역을 의뢰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30여개의
지정어항에 대한 현지조
사자료 및 의뢰의 자료를

主要港灣확충 海港廳, 2001년까지 5千6百億원投入計劃

수산청은 2천여개는 부산
을 비롯한 광양, 인천항
등 국내 주요항만에 지역
과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권역별 거점항만과 기능
별 전용항만으로 집중개
발한다.
해운항만청의 최근 해

마다 늘어나고 있는 수출
입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모
두 5조6천1백억원을
투입, 국내 주요항만의
시설을 지역 기능특성의
차이에 따라 확충키로 했

해운청이 또한 수출입
화물의 효과적인 수송을
위해 부산·광양항을 전
국에 이차전용항으로, 울산·
대구항을 유류전용항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항은 신항(북항)·
부산지(대포)·군산항을
국제전용항으로, 제주와
수주항을 관광전용항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다.

漁港會館기금還至 朴星泰社長, 4千8百萬元 寄託키로



朴星泰 사장

박성태사장(성보건설사
장)은(는) 최근 본회회를
발원 어항회관건설기금

으로 거금 4천8백만원
을 3회에 걸쳐 기탁하겠
다고 약속하고 1차로 1
천8백만원을 쾌척함으로
써 기금모금운동의 새로
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

다.
한국어항협회가 주최하
고 있는 어항회관건설기
금모금운동은 최근 관계
공무원 단체·개인회관
등 많은 단체들이 기금
을 기탁하고 있다.
기탁, 관심을 보인다
이, 최근 (주)세일종합기
술공사 유관장부사장이
50만원, 수산청김사장이
50만원의 10만원씩 기
탁했다.
또한 수산청 조우연협
동조합과장, (주)유일중
합기술단 손일수차장, 부
산수산대학교 유동호교수
도 각각 50만원씩 기탁했
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회관
한편 협회의 자구책을 연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원
거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관건설을 위한 재원은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신지에 실행을 기할 수 있을지
지도 실행을 계획하는 등 실행
부담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회원 건설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수산청의 어항개발사업
은 10월 25일 일제
에서 개최될 제42회일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키
위해 24일 출국했다.
佐藤 幸夫 일제전국어항
협회장의 초청으로 발원

한 수산청회관
양곡 어항의 어항발전
과 어항개발 등 어항발전
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
로 했다.
한편 수산청회관이 이
날 대한어항협회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창하고 10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동대회는 본회회
영향사투이가 동행했
다.



孫井植 회장

수산청회관 어항회관
은 10월 25일 일제
에서 개최될 제42회일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키
위해 24일 출국했다.
佐藤 幸夫 일제전국어항
협회장의 초청으로 발원

한 수산청회관
양곡 어항의 어항발전
과 어항개발 등 어항발전
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
로 했다.
한편 수산청회관이 이
날 대한어항협회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창하고 10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동대회는 본회회
영향사투이가 동행했
다.

정부는 산업설비 및 중
합건설기술개발을 통해
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
는 한편 기술자화하기주
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관련단체와 따르면 현
재 기술인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설비 및 중
합건설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사 10인 및 건축사
1인을 포함하고 고급기술
자 30인 이상을 확보토록
되었으나 기술사가 현재
히 부족한 전문분야에 대
해 기술사 대신 고급기술
자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어항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어항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어항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工事用語순화운동 펼쳐기로

調達廳, 日本어투表現醇化細部計劃마련

工事現場서 고쳐나가기로

業體에協助요청

조달청은 각종 공사분야에서 공공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공사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공사현장(중·중소기업) 일본어투순화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월 조달청이 마련한 「공사분야 일본어투표현순화세부계획」에 따르면 특히 각종 공사분야에서 일본어투 사용이 심한 점을 감안, 공사관리 현장 공사계약 체결업체 및 시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투 사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공사용어를 우리말로 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일본어투 사용을 수집하기로 한 한편, 각 수요기관, 단체, 공사계약체결업체 등의 이달말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日農林水産省 '91年漁港豫算

千9百25億엔 新規사업크게 늘여

일본 농림수산성(MLA)은 1991년도 수산관계 예산을 3천3백97억6천6백만엔을 요구했다.

이 중 어항정비비(건설)에 1천9백25억1천5백만엔(통상)을 1천6백58억2천5백만엔, NTT비 2백66억9천만엔(이)고, 해안사업(1) 1백45억8천3백만엔(통상)을 1백25억6천9백만엔, NTT비 20억1천4백만엔(이)이다.

1991년도 제8차 어항정비비계획의 제4차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예산의 절대화비의 노력이 하고 있다.

어항관계 사업은 어항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어항이용 조정사업 및 마리노베이션 지역의 있어서 어항의 정비비를 계속해 나가며 신규사업으로서 ①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확충(사업비)을 200억엔, 페기블러디시 재사업이 있다.

어항의 확충을 통하여 어항의 대안 새로운 물질을 인수를 제고하고, 어항개발의 촉진과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기인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올해도 어항정비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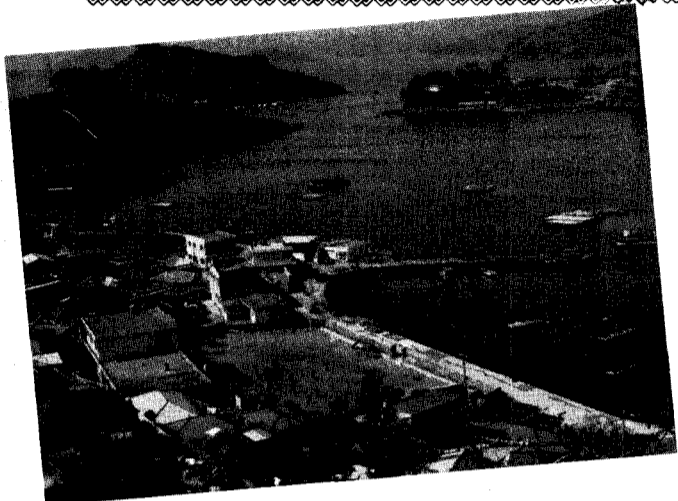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은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확충(사업비)을 200억엔, 페기블러디시 재사업이 있다.

11月초現地向發 公式案内받기로

第2回 先進漁港시찰단 磨勘

한국어항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선진어항시찰단모집에서 최근 30여명의 신청자접수를 받고 마감했다.

수산청 및 각시·도판계청(부산, 울산, 경남, 경북, 충청, 강원, 전북, 전남, 제주)에서 신청한 시찰단원 30여명(남자 20명, 여자 10명)은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 동안 일본 신사기(新長崎)어항을 8개



일본 신사기(新長崎)어항을 8개

자 및 수산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수산관계 전문가 450명 이상을 초청한다.

수산청(수산부)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망고 應募바랍니다

第3回 漁港寫眞公募

어항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어항의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촉진과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기인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올해도 어항정비를 계속한다.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은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확충(사업비)을 200억엔, 페기블러디시 재사업이 있다.

어항의 확충을 통하여 어항의 대안 새로운 물질을 인수를 제고하고, 어항개발의 촉진과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기인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올해도 어항정비를 계속한다.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은 어항정비비(건설)사업의 확충(사업비)을 200억엔, 페기블러디시 재사업이 있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2천3백29억원을 서해안개발사업비로 투자할 방침이다.

서해안개발사업비는 총 4조7천880억원으로 내년도 2천3백29억원은 서해안개발사업비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2천3백29억원을 서해안개발사업비로 투자할 방침이다.

서해안개발사업비는 총 4조7천880억원으로 내년도 2천3백29억원은 서해안개발사업비로 투자할 방침이다.

農漁村發展基金

8百49億원요구

수산청(수산부)은 내년도 수산부문에 지원할 농어촌발전기금(농어촌발전기금)을 8백49억1천만원을 요구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올해 이미 확보한 농어촌발전기금 외에 55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수산물가공시설에 440억, 어선용기자재생산에 80억, 어류연제품생산에 30억을

수산청(수산부)은 내년도 수산부문에 지원할 농어촌발전기금(농어촌발전기금)을 8백49억1천만원을 요구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올해 이미 확보한 농어촌발전기금 외에 55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수산물가공시설에 440억, 어선용기자재생산에 80억, 어류연제품생산에 30억을

遠洋漁業·輸出入業 瑞洋水産株式會社

代表理事 李 在 坤

어려운 현 여건 아래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승선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노고를 치하하오며 여러분들의 진승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本 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22番地
電話 / (02) 701-7362~4
釜山直轄市 : 釜山直轄市 中區 南浦洞5街 92 신동아 상가빌딩 605號
電話 / (051) 275-7023
파라마리보 : 48 Corn Jongbaw St. Paramaribo, Surinam
電話 / (597) 55624

- 임직원 일동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17]

水域施設

3. 박지 및 수역의 면적산정 방법

특정목적용 박지는 정기선 발착, 어선수리등, 앞(가~다호)에서 말한 양육용박지, 준비용박지, 휴계용박지외의 특정목적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역이다. 사용방법에 따라 세로나 가로 어느쪽으로 배를 붙이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하여 가로로 붙이는 경우는 앞호의 가로 양육용박지에 준하고 세로로 붙이는 경우는 앞호의 다호에 준하여 면적을 산정한다.

마. 묘지(錨地)
묘지는 어선이 계선안(係船岸)을 사용하지 않고 닻이나 부이등을 사용하여 정박하기 위한 수역으로써 각각의 정박 방법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산정한다.

다음 도면1 묘지정박의 종류는 중·대형어선의 기준이며 소형어선의 묘지정박에 대하여는 각항의 계류상황에 따라 면적을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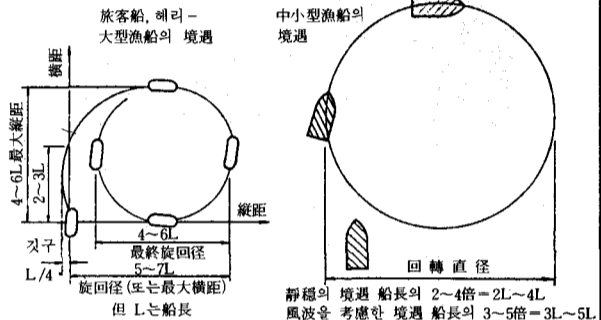
바. 조선용 수역(操船用水域)
조선용 수역은 어선의 접안, 이안등을 위하여 방향을 변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확보한 항내의 수역이다.

조선의 순서는 대개 선외와 경우는 도면2(선외도), 배를 돌리는 조선순서)과 같다.

앞의 가~마에서 설명한 수역의 면적산정은 정박중의 소요면적이며 조선을 위한 면적산정은 세로나 가로의 계선방법, 계선안의 범선, 항구위치와 계선안의 상대위치 또는 바람조류 등에 의해서 조건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한나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 황천시용 박지
일반적으로 황천시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계류방법, 여유길이, 여유폭 등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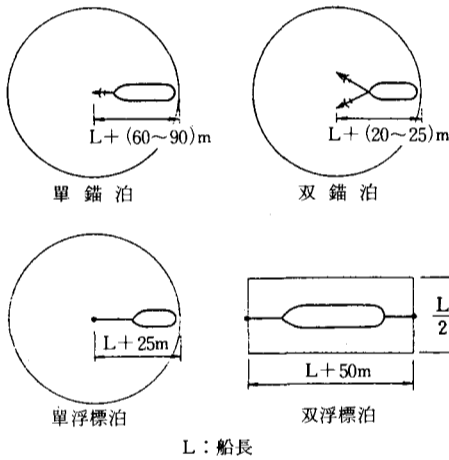
황천시의 수역면적 산정은 다음 공식이 사용된다.
수역면적 = (평균선장 + 여유) × (평균선폭 + 여유) × 척수
아 기타 수역
실제에 있어서 앞에서 기술한 계산된 수역면적은 단순히 배치한 것이므로 현지의 지형에 적합한 수역의 배치계획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의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앞에서 기술한 가~사까지에 속하지 않는 기타수역이 발생한다. 이수역은 항내의 정은도 향상을 위하여 조선의 원활화를 위하는 등으로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것이나 수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면 2. 旋回圖

- 1: 本船停止, 前進微速키를 오른쪽으로 다 튕다. 本船前進, 後進微速키를 왼쪽으로 다 튕다.
- 2: 本船停止, 本船後進, 前進微速키를 왼쪽으로 다 튕다.
- 3: 本船停止
- 4: 本船前進키를 오른쪽으로 다 튕다.

도면 3. 배를 돌리는 操船順序



도면 1. 錨地停泊의 種類

청어

말린 청어(과미기), 짬뽕에 구운맛 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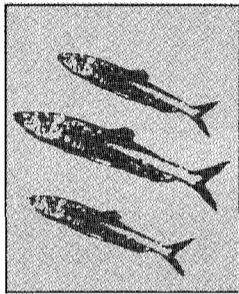


진·강·하·계·삼·시·다

어는 선비들을 살찌게 하는 물고기로서 동해청어, 서해청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어느 한쪽은 청어의 최유로 4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청어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그때를 기다리면 바다를 깨끗이 해 산란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청어는 산란을 열광적으로 한다. 청어떼가 본격적 산란을 할 때는 심한 몸부림과 대량사정으로 바다빛이 변한다. 무빛과 같은 백색색으로.

이를 두고 「화이트 그린」이라고도 한다. 침성점착성(沈着性)이 강하여 지름 1.4mm 정도의 알을 암컷이 바위에나 모래밭, 해조류에다 붙여놓는다. 수컷이 그 위에 사정을 하여 부화시키는 것이다. 迎日灣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산란시의 소리가 난다.



어는 선비들을 살찌게 하는 물고기로서 동해청어, 서해청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어느 한쪽은 청어의 최유로 4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청어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그때를 기다리면 바다를 깨끗이 해 산란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청어는 산란을 열광적으로 한다. 청어떼가 본격적 산란을 할 때는 심한 몸부림과 대량사정으로 바다빛이 변한다. 무빛과 같은 백색색으로.

이를 두고 「화이트 그린」이라고도 한다. 침성점착성(沈着性)이 강하여 지름 1.4mm 정도의 알을 암컷이 바위에나 모래밭, 해조류에다 붙여놓는다. 수컷이 그 위에 사정을 하여 부화시키는 것이다. 迎日灣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산란시의 소리가 난다.

日本사람과 우리나라 남쪽 지방사람들은 정초에 많은 차손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청어를 먹는 관습을 전하고 있다. 청어 역시 선도의 변화가 심하고 잔가지가 많아 횡간으로 부적합하고 주로 구워 먹는다. 경북지방에서는 말린 청어를 과미기라고 부르는데, 과미기속국을 제일도 친다.

迎日灣에서 이 과미기를 특산물로 중요시하고 있다. 과미기는 짬뽕에다 구워 곱질을 벗겨버린 후에 아주 새소금에 적어먹으면 일미라고 한다.

전라도지방에서는 청어를 여러 사람이 많이 먹고 있을 때 마에 물을 붓고 그안에 대밭을 건너질러 그위에 청어를 놔져 면 청어김의 기를 아래로 떨어지고 삼은 토실토실해진다. 이것에 고추장을 발라 살짝 구우면 더욱 맛갈스럽다고 전한다.

과열 '스카웃' 그해악

고용윤리 파괴하는 범죄행위

● 經 · 濟 · 교 · 실

● 經 · 濟 · 교 · 실

스카웃의 반대개념은 해고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자 등 직원을 스카웃하고 또 해고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고용방침을 쓰는 현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금품공세등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스카웃을 하고 인력이 남아돈다 싶으면 가차없이 해고를 하는 실정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인력의 수요공급에 어느정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변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인력조절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인력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쟁업체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이처럼 스카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 다른 업체의 인력을 빼돌리는 행위가 과열상태를 빚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과열 스카웃이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것은 지난 70년대말 중동건설 수출붐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로 기술인력을 빼돌리기에 혈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인력의 급여수준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불필요한 경쟁때

문에 기업 스스로가 급여인상을 단행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배양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4년의 긴 세월을 특정분야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A기업이 빼돌린

인력을 B기업이 보다 많은 보수를 약속하고 다시 빼돌리고 C기업·D기업 역시 같은 수법을 쓰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이 빙글 빙글 도는 꼴이 된 것이다.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스카웃 할 때에는 그런 데로 납득이 가고 기술자 본인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다.

기업인들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지녀야 할 것이다.

병폐를 발생시킨다.

거액의 금품으로 인력만 빼돌리는 게 아니라 산업 정보마저 훔치는 식이어서 경쟁업체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악(害惡)을 저지른다. 이것은 일종의 고용윤리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웃했을 때 참다운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힘들다. 금품으로 매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금전관계에 의해 상호유대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우가 조금만 나빠져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때문이다.

기업인들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지녀야 할 것이다.

과거 호황기때 곳곳에서 과열스카웃 소동이 벌어졌으나 그뒤 임금도 치솟고 물가도 뛰어들어 다음 골이 불황기에 접어들자 그 댓가를 뼈아프게 치루지 않았던가.

이때 기업들은 자신들이 올린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자의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너무 웃돌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죄과(罪過)를 영등하게 임금쪽에 떠넘겨 버렸다.

비록 기술자들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바라고 직장을 옮긴다지만 부당스카웃의 1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는 것이다.

기술인력의 양성에 드는 돈이 아까워서 이를 등한시했다가 경기(景氣)가 호전되면 다른 기업의 인력을 빼내오는 것은 참다운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반칙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때 경영실적이 오를지는 몰라도 근로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사심(愛社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기술축적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호황·불황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을 아껴서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축적에 힘쓸 때 노사일체에 의한 영구적인 생산성향상이 보장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 눈앞의 이익보다 장래 내다보는 안목지녀야 |